

민주당 시민배심원제-과학벨트-무공천 싸고 갈등 속

# ‘원칙론’ 발언 주목받는 박주선

민주당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혼선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의 ‘원칙론’이 주목받고 있다.

상당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따르기 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뚜렷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과 관련, 당시 지도부 등 주류 측에 맞서 끝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가 대폭 축소되고 소수의 배심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류 측이 끝까지 밀어붙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결과적으로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과학벨트) 문제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가 입지를 충청권 입지를 당론으로 정한데 대해 정면으로 맞서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적 부담 불구 대세론에 맞서 소신 펴  
지도부 곤혹... ‘유연성 없다’ 비난 받기도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박주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동의가 없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데 당론

결정 과정에서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도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을 연결, 3각 과학벨트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원칙과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7일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서도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의 순천 ‘무공천’ 방침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른 통 큰 양보는 백 번, 천 번도 가능하지만 자선사업가가 기부행위 하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이어 “유권자는 대표 등 지도부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며 “총선, 대선 연합을 위해서

라도 이 기회에 확실히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원칙론’은 당내 주류 세력 및 전반적인 대세론에 맞서는 등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도부에서도 박 의원의 원칙론에 별다른 논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원칙 고수 행보에 대해 유연성과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정치인’, ‘보수적 기독교’, ‘독불장군’ 등의 협한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여론몰이식의 대세론에 밀려 반박하기 보다는 옳지 않은 일에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을 건강한 정당으로 성장시키고 내 자신에게도 정치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굳은 표정의 손학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보고 II 잠수함” 도입 과정 195억 낭비

국회 국방위, K-계열 무기 잇단 결함 질타

국회 국방위의 7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계열 무기 등 국산 무기의 잇따른 결함에 대해 질타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개발한 K-2 흑표 전차가 결함 때문에 터기 수출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하면 2006년 도입된 해군 부력 방탄복은 8046개 가운데 4000개

이상 이 문제가 생겨 참고에 버려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K-계열 무기들도 개관을 쳐놓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빼놓고 모두 국내 개발하겠다고 한다”며 “5~10년 뒤 전쟁이 나서 북한군은 재래식 무기도 뿔뿔이 쪼개서 쓰는데 우리 군은 첨단무기를 하나도 못 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차기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II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우리 군이 계약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현재 195억원이 낭비됐다”고 몰아붙였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방사청 차장은 “방사청으로서 책임은 통감하고 있다. 조기에 해결하겠다”면서 “투명성 차원에서 태생적으로 방사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정몽준 전 대표 광주·전남 방문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정몽준 전 대표가 8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공항에 도착해 보성 아산병원과 해남 참다래 농장, 배추 농해 피해지역 등을 둘러보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영암 삼호중공업과 나주 영산강 승촌보 현장을 둘러본 뒤 강진에 광주시장과의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또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와 자문교수단 면담에 이어,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만난 뒤 귀경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출범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 시의회는 8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



의실에서 정책네트워크 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위원 위촉식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각 위원회별로 선임된 외부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민주 여수갑위원회 ‘당 개혁위’ 구성

민주당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7일 당 소속이던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 당 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지방의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인사들을 선정하기로 했다.

여수 갑 지역위원장인 김성근 의원은 “개혁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실천함으로써 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여수시와 시의회의 명예회복과 민생정치를 위한 각별한 대안을 연구하도록 개혁위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여야 의원들 별거벗고 만난다

‘목욕탕’ 회원 만찬 회동  
안상수·최인기 등 참여

여야 화합을 위해 결성한 국회 친목모임 ‘목욕탕(沐浴堂)’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저녁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는 ‘목욕탕’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에서 정몽준·허태열·송광호·이사철 의원, 민주당에서는 박병석·유선호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주

최하는 이날 만찬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인 만큼 정점 법안 처리 등 정치적 사안보다는 일상적 소재가 화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욕탕’은 국회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는 여야 의원들이 물밑대화의 창구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가 부드럽게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 4월 만들어졌다.

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목욕탕 회원들에게 만찬 초청을 했다”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참석했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사회지도층 자녀 별도 징병검사 받아야”

강용석, 특례법안 발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에 대해서는 병역 신체검사를 따로 시행하도록 하는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및

특권층 인사와 자녀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같은 징병검사는 매 분기 1회 실시된다.

특히 당사자가 원할 경우 징병검사 결과, 징병검사 연기사유, 병역 수행 상황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우 선관위 총장 방문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7일 광주·전남 선관위를 방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전남선관위에 도착해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번 4·27 재보궐선거와 내년에 실시될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민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오는 4월27일 치러지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 고질적인 선거법 위반의 악습을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단속을 주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古家** 고향의 맛  
**고가약소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청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b>점·심·특·선</b>	<b>약소리탕</b>
오리탕 5,000원	1마리 36,000원
11:30~1시 까지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소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

Arts Hall Hotel & Wedding  
관광호텔예술의전당 Business Tourist Hotel

웨딩특전 1급비즈니스관광호텔  
**상무 예술의전당**

GRAND OPEN  
웨딩특가

모든객실 천연대리석 마감재 사용으로 최고의 품사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1가지 특별함

- 광주의 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 예식장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
-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 차별화된 호텔식 100여가지 즉석 뷔페
- 혼주 가족 전용 VIP룸 이용
-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허니문 룸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 웨딩계약시 추가혜택 (대형액자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헬퍼와 페엑수모비서비스)
- 대형예식장과 동일한 뷔페식비로 단독 연회를 사용 (3만원 - 10,11,12월 / 2만8천원 - 1,2,6,9월 / 2만6천원 - 7,8월)
- 이브닝예식 비이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10%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할인혜택)
- 35만원상당의 현악3중주
- 25만원상당의 예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생화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룸서비스
- 하객 400명 이상 보장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돌·회갑·행사** 호텔식 뷔페 80가지 2만8천원 (50석 ~ 500석 대 · 소 행사가능)

**객실 특전**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만식 30가지) 객실료 50% 할인된 7만원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 객실 인터넷가능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콜센터 옆) | www.hotelarthall.co.kr